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8, pp. 102-109,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8.102

한국의료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중심으로

김유미, 김상숙*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Korean Medical Tourism - Focusing on Chinese K-Medical Tourists

Yu-Mi Kim, Sang-Sook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 약 국내 의료관광은 태국이나 싱가폴, 인도 등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관광 선진국에 비해 성장이 저조한 편이며, 이에 따라 국내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관광속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관광속성을 의료품질과 관광품질, 그리고 비용 및 접근성 등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료관광객의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의료품질, 접근성,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이 관광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의료서비스품질, 가격적정성, 관광품질은 의료관광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관광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한국의료관광, 중국의료관광객, 의료관광속성, 관광객만족, 재방문의도

Abstract Despite of advanced plans from Korean government to encourage Korean medical tourism, the medical tourism in Korea is still under competitive compared to the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Singapore, and India, in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driving the development in industries of medical tourism, Moreover, the studies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ourists' satisfaction has not been actively performed up to d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quality of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cost adequacy, and quality of tourism of Korean medical tourism on Chinese tourist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study, a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Chinese medical tourist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medical tourism attributes including quality of medical service, cost adequacy, and quality of tourism have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medical tourists' satisfaction. Second, tourists'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evisit intention.

Key Words : Korean medical tourism, Chinese medical tourists, Medical tourism attributes, Tourists'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Corresponding Author : Sang-Sook Kim(ssk.cheongam@gmail.com)
Received June 21, 2019
Revised July 25,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서비스산업의 포화상태를 초래하였다[1]. 현재 국내에서의 서비스 관련 산업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재고할 수 있는 국내의료관광은 매력도가 높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관광 관련 전문 인력 부족과 국내 의료법 및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국내의료관광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관광시장은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2].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다 선진화된 기술, 높은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적절한 비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해외 국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동기를 찾는다[3]. 한국은 2000년대 이후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컨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의료관광은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성형 및 미용관련 치료, 건강검진, 디스크수술, 심혈관계수술, 암치료 등의 의료전문분야에서 치료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진료장비 및 진료서비스, 비용적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강점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2].

하지만 현재 국내 의료관광의 경우 태국이나 싱가폴, 인도 등의 정부주도형 의료관광 선진국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태로 성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정책 및 상황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4].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의료관광은 전체 외국인 321,574명 중 중국인 환자수가 99,837명으로 국가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환자의 31.0%를 기록하고 있다[5]. 이 중 여성환자의 비율이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29.2%, 20대가 27.1% 순으로 주로 젊은 층에서 한국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환자 중 72.6%가 서울 소재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지불한 총 진료금액은 1,84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입원환자가 지불한 총 진료금액은 56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4만원이며,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665만원으로 나타났다[5]. 이는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 및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의료관광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방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의료관광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료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의도, 중국소비자들의 한국 방문 목적과 소비성향,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동기, 지각된 위험, 충성도의 영향 관계, 미용 및 성형 관련 의료관광에 대한 행동의도 등 다양한 연구목적과 배경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의 동기와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9].

하지만, 의료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관광속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의료관광속성을 의료품질과 관광품질, 그리고 비용 및 접근성 등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한중국인이 인식하는 의료관광속성이 의료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관광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료관광산업에서 중국소비자 행동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료관광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의료관광속성

한국의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은 의료서비스 및 휴양, 레저 및 문화활동 등의 관광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로 인식하고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관광진흥법」 제12조 2항에서 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의료관광을 정의할 때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환자를 위한 일종의 여행패키지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의료관광이라함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11].

한편, 의료관광속성은 의료관광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데

있어 편리한 교통, 용이한 접근성, 합리적인 의료비용, 짧은 대기시간, 질높은 의학적 치료, 치료와 관광의 동시성 등의 속성을 포함한다[12.13]. 따라서 의료관광속성은 의료속성과 관광속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 품질, 편의성, 접근성, 차별성 등의 하위구성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14,15]. 이를 종합해 볼 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의료관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점에서 기술하기보다 제도적 관점에서 중요시하는 선택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 측면에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광서비스 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7].

의료관광속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변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Lin(2010)의 동남아 아시아 국제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 의료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환경, 의료기술, 의료서비스 수준, 목적지의 지리적 접근성 등 4가지 속성요인을 확인하였다[16]. 한편, 곽대영(2011)의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선택 및 관광선택속성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의사의 전문성, 의사소통의 편리성, 가격적정성, 시술 후 서비스 등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7,18].

본 연구에서 의료관광속성은 의료활동 및 관광활동이 결합된 관광형태로서의 한국방문동기로 정의하였고 하위구성요소로 의료품질, 접근성,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을 포함하는 4가지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2.2 의료관광만족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고객만족은 특정 활동 후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의 총체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관광 분야에서 만족이라 함은 의료관광의 체험에 따른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이 때 발생하는 기대이상의 경험을 만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9]. Baker and Grompton(2000)의 연구에 따르면, 만족은 의료관광객의 방문전 기대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서 관광 후 평가되는 긍정적인 구전이나 추천이라고 정의하였다[20].

본 연구에서 선행변수인 의료관광속성의 하위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의료품질, 접근성,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의 네 가지 속성이 의료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최복수와 김영석(2014)의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거리편익은 의료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광서비스 품질이 낮아질수록 의료관광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1]. 이는 본 연구의 변수인 의료품질, 접근성, 관광품질이 의료관광만족과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영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료관광객에게 있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중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은 의료관광객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즉, 중국의료관광객이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정함에 있어 의료품질과 접근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영균 등(2016)의 연구에서는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 요인과 고객만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의료관광속성과 의료관광만족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 의료관광속성은 의료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 의료품질은 의료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 접근성은 의료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 비용적정성은 의료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 관광품질은 의료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재방문의도

방문의도는 고객만족에 따른 결과변수로 구매 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14]. 행동의도, 즉 구전의도, 추천의도, 방문의도 또는 재방문의도는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의미한다[23]. 관광분야 관련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 후 나타나는 행동으로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 따라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의료관광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재방문의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방문의도는 의료관광객이 특정 의료기간을 이용한 후, 의료기관을 재방문 할 의도가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의미하며, 고객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서비스품질

과 이에 대한 만족 및 신뢰의 결과로 재방문의도가 형성될 수 있다[24].

김민형 등(2015)의 연구에서 관광품질과 지각된 가치, 만족, 행동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만족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25]. 한편, 장병주 등(2012)의 연구에서는 의료관광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24], 왕영균 등(2016)의 연구에서, 중국인의 한국의료관광 만족과 재방문의도의 관계분석에서 의료관광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료관광만족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의료관광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설정한 가설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료관광객의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의료서비스품질, 접근성, 가격적정성, 관광품질이 관광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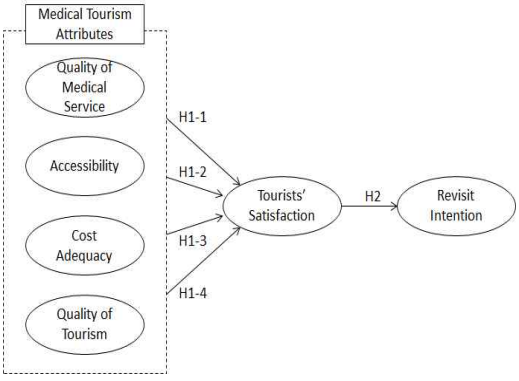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료관광속성인 의료품질, 접근성,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이 의료관광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의료관광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방문하는 관광객 중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주에 거쳐 진행하였으며, 배포된 총 300부의 설문지 중 29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64부를 SPSS 18.0, AMOS 21.0을 이용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관광속성은 박호표(2012), 정기한(2019), 조영신(2015)의 연구에서 각 속성별로 4개씩의 문항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2,14,15].

구체적으로, 의료품질은 "병원의 위생상태는 좋은 편이다.", "병원 내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이 있다.", "병원 의료진은 전문적이다.", "병원의 의료시설은 좋은 편이다."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접근성은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짧다고 생각한다.", "현지 관광시 이동시간은 짧다고 생각한다.", "현지 교통서비스는 편리한 편이다.",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근접하다."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비용적정성과 관련하여 "의료관광의 비용이 적절한 편이다.", "의료관광서비스에 대한 비용대비 전반적인 만족한다.", "의료와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국에 비교해 볼 때 괜찮은 수준이다.", "비용 대비 의료서비스 품질이 좋은 편이다."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관광품질과 관련하여 "관광 상품이 다양하다.", "현지의 쇼핑을 위한 시설 및 기회가 다양하다.", "관광자원이 다양하다.", "숙박시설이 쾌적하다."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정현경과 이희정(2015)의 연구와 조영신(2015)의 연구로부터 의료관광만족에 대한 측정문항과 강춘한 등(2013)의 연구에서 재방문의도에 대한 측정문항을 수정하여 각 4개씩의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14,19,23].

관광객만족과 관련하여 "한국의료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관광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한국의료관광 이용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방문의도와 관련하여 "차후 한국의료관광을 이용할 의도가 있다.", "다른 국가보다 한국관광 선호한다.", "의료관광시 한국을 목적지 국가로 고려하겠다.", "의료관광시 한국을 재방문할

의도가 있다."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이상에서 총 24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76명(28.79%), 여자가 188명(71.21%)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117명(44.32%), 30대는 83명(31.44%)로 20~30대에서 75퍼센트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소득수준은 80만원이상 120만원미만이 123(46.59%)로 총 설문자의 절반에 가까운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문목적은 성형수술 및 피부미용이 80퍼센트에 가까운 높은 빈도를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에서 발표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현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여성환자의 비율, 이중 20대와 30대가 특히 많다는 점, 성형과 미용의 목적으로 의료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80%에 육박한다는 통계자료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설문의 대상이 전체 중국 의료관광객을 대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2,5].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Item	Frq.	Ratio
Gender	Male	76	28.79%
	Female	188	71.21%
	Total	264	100%
Age	20s	117	44.32%
	30s	83	31.44%
	40s	48	18.18%
	Over 50s	16	6.06%
	Total	264	100%
Income	Less than $500	19	7.20%
	$500 ~ $800	43	16.29%
	$800 ~ $1,200	123	46.59%
	$1,200 ~ $1,500	55	20.83%
	More than $1,500	24	9.09%
	Total	264	100%
Purpose of Visit	Plastic Surgery	105	39.77%
	Skin Care	88	33.33%
	Other Operation	48	18.18%
	Medical Checkup	23	8.71%
	Total	264	100%
No. of Visit to Korea	Once	38	14.39%
	Twice	70	26.52%
	3 Times	74	28.03%
	4 Times	53	20.08%
	5 Times or More	29	10.98%
	Total	264	100%

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구성개념 신뢰도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기준치인 0.7을 상회하므로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표준요인적재량이 0.7(유의수준 1%),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각각의 기준치 0.5를 상회하므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확인적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	Std. Est.	S.E.	t-value	CR	AVE
Quality of Medical Service	QM1	.825	-	-	.882	.659
	QM2	.790	.072	12.985		
	QM3	.828	.074	13.863		
	QM4	.803	.071	13.258		
Accessibility	AC1	.781	-	-	.875	.621
	AC2	.765	.094	11.275		
	AC3	.845	.094	12.542		
	AC4	.781	.100	10.067		
Cost Adequacy	CA1	.838	-	-	.879	.635
	CA2	.745	.072	11.565		
	CA3	.835	.078	13.489		
	CA4	.761	.077	11.412		
Quality of Tourism	QT1	.795	-	-	.842	.572
	QT2	.702	.088	10.575		
	QT3	.811	.085	12.285		
	QT4	.709	.091	10.475		
Tourists' Satisfaction	TS1	.811	-	-	.878	.612
	TS2	.762	.073	11.768		
	TS3	.823	.078	12.667		
	TS4	.785	.075	12.675		
Revisit Intention	RI1	.865	-	-	.911	.785
	RI2	.847	.703	15.686		
	RI3	.895	.665	17.241		
	RI4	.832	.735	15.135		

x^2=265.154(218), p=0.000, CMIN/DF=1.216, RMR=0.045 GFI=0.908, TLI=0.958, CFI=0.966, AGFI=0.852, RMSEA=0.032

4.3 측정도구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변수에 대한 AVE제곱근 값이 비교하는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보다 높을 때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표에서 제시된 AVE의 제곱근 값은 일부 상관계수보다 낮게 나와 판별타당성에 다소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상관계수가 0.9를 상회하지 않으므로 연구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26].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1)	(2)	(3)	(4)	(5)	(6)
(1)	*0.832*					
(2)	0.775	*0.811*				
(3)	0.435	0.465	*0.853*			
(4)	0.756	0.682	0.538	*0.872*		
(5)	0.654	0.523	0.652	0.681	*0.881*	
(6)	0.634	0.582	0.645	0.684	0.792	*0.925*

* Squared root of AVE values are on the diagonal.
(1) Quality of Medical Service
(2) Accessibility
(3) Cost Adequacy
(4) Quality of Tourism
(5) Tourists' Satisfaction
(6) Revisit Intention

4.4 경로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 2$=265.154(218), p=0.000, CMIN/DF=1.216, RMR=0.045 GFI=0.908, TLI=0.958, CFI=0.966, AGFI=0.852, RMSEA=0.032로 수용할 수 있는 권장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가설 검정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Path Analysis

Hyp.		Std. Estimate	p-value	Results
H1	H1a	0.284	0.041	Accepted
	H1b	0.045	0.584	Rejected
	H1c	0.412	**	Accepted
	H1d	0.354	**	Accepted
H2		0.832	**	Accepted

$\chi 2$=265.154(218), p=0.000, CMIN/DF=1.216, RMR=0.045 GFI=0.908, TLI=0.958, CFI=0.966, AGFI=0.852, RMSEA=0.032
**p<0.01

첫째, 의료품질이 의료관광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1-1은 (β=0.284, p=0.041)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둘째, 접근성이 의료관광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1-2는 (β=0.045, p=0.584)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셋째, 비용적정성이 의료관광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1-3은 (β=0.412, p=0.000)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넷째, 관광품질이 의료관광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1-4는 (β=0.354, p=0.000)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끝으로, 의료관광만족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2는 (β=0.832, p=0.000)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의료관광속성(의료품질, 접근성,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이 의료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관광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관광속성 네 가지 중 의료품질,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은 의료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근성은 의료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관광속성 중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용적정성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품질, 의료품질 순으로 의료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송민경과 김상혁(2015)의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있어서 의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품질이 의료관광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적정성이 의료관광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호표(2012)의 연구결과에서 적정하거나 저렴한 의료비용,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요인은 의료관광지 선택에서 중요한 선택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비용적정성과 만족의 상관관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중국 현지보다 저렴한 의료비용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경우 상품패키지를 구성할 때 방문목적에 맞는 비용을 산출해야 할 것이며, 중국 현지 의료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준거가격을 형성하고, 관광지 선정 및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의료관광 전반에 소요되는 매력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중국인을 환자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관광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할 것이다.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경우 인지도 높은 도시에서 관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에서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도시를 적극적으로 인식 시키는 활동을 포함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영신(2015)의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이 의료관광객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즉, 본 연

구에서는 의료관광속성 중 접근성은 의료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관광과는 달리 의료관광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성이라는 의료관광속성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의료관광지로 선택한 한국에 대한 접근성, 즉, 짧은 비행거리, 편리한 교통, 근접한 숙박시설 등과 같은 접근성 요인은 의료관광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며, 의료관광지 자체의 의료품질 또는 관광품질, 관광시 지출하는 비용 등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접근성이 기각된 이유에 대하여 여행의 형태가 자유여행인지 또는 패키지여행인지 구분하고, 의료관광시 방문하는 관광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의료관광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품질, 비용적정성, 관광품질의 재고를 통한 의료관광만족은 방한 중국인의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반드시 재이용의도나 재방문의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료관광이 가진 특수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방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한국의료관광에 만족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금 의료관광의 필요를 느낄 때 한국을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FERENCES

[1] J. H. Lee & H. B. Kim. (2018). 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s and satisfaction of health tourism to foster the growth of health tourism industry. *Regional industry review, 41(1),* 115-141.

[2] K. H. Chung. (2019). A Study on the Antecedents Influencing Chinese Tourists' K-Medical Tourism.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9(1),* 241-253.

[3] R. Mishra & S. Kumar. (2008). Making Indian healthcare market a global medical tourism destination. *IOSR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2(4),* 23-28.

[4] S. A. Cho & S. D. Choi. (2016). A Preliminary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Medical Tourism Activation Policy and its Political Countermeasures: Focused on the Identifying Major Issues Using Foreign Case Analysi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40(7),* 165-181. DOI : 10.17086/JTS.2016.40.7.165.181

[5] Y. Lim. (2018). Statistics on International Patients in Korea, 2017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6] M. C. Kim, Y. B. Choi & C. S. Boo. (2014). Choice Intention on Health Tourism Destination of Chinese Tour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1),* 159-170.

[7] M. G. Song & S. H. Kim. (2015).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Medical Tourism Selection Attributes by Nationality, Visiting Purpose, and Consumption Tendency - Focused on Chinese and Japanese Medical Tourist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0(2),* 331-351.

[8] S. J. Lee & K. H. Choi. (2015). The study of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tourism motivation, perceived risk, and loyalty of Chinese medical tourists of Korea :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f medical tourism service quality.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67,* 217-243.

[9] E. J. Yang & M. H. Cho.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Behavior Intention for Chinese Cosmetic Surgery Tourism: Focusing o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6),* 47-64. DOI : 10.17086/JTS.2015.39.5.47.64

[10] V. A. Crooks, P. Kingsbury, J. Snyder & R. Johnston. (2010). What is known about the patient's experience of medical tourism? A scoping review.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0(1),* 266-277.

[11] R. J. Lee & B. W. Chung.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 brand image through Korean wave contents BPL and medical tourism related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8),* 183-193. DOI : 10.21298/IJTHR.2016.08.30.8.183

[12] M. Imison & S. Schweinsberg. (2013). Australian news media framing of medical tourism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a content review. *BMC Public Health. 13(1),* 109.

[13] N. Lunt & P. Carrera. (2010). Medical tourism: assessing the evidence on treatment abroad. *Maturitas, 66(1),* 27-32. DOI : 10.1016/j.maturitas.2010.01.017

[14] Y. S. Cho. (2015). The Effects of Medical Tourism Selection Attributes on Servic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Focused on

Chinese Medical Touris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7(9),* 301-320.

[15] H. P. Park. (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Destination Choice Attribut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Daehan Journal of business, 25(1),* 131-146.

[16] H. C. Lin. (2010). How to promot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in Southeast Asia. *Internet Journal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7(1),* 1-6.

[17] D. Y. Kwak. (2011). A Study on Product Choice Attributes of Medical Tour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5(4),* 85-101.

[18] J. Yu & T. Ko. (2011). A cross-cultural study of perceptions of medical tourism amo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tourists in Korea. *Tourism Management, 33(1),* 80-88.

[19] H. K. Chung & H. J. Lee. (2015).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 Implications for Check-ups or Cosmetic Surgery Tourism. *Management education review, 30(5),* 117-141.

[20] D. A. Baker & J. L. Crompton. (2000).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785-804.

[21] B. S. Choi & Y. S. Kim. (2014). A Study on selective Factors and Satisfaction and Preference for selective Factors of Korean Medical Tour Servic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6(2),* 122-145.

[22] Y. G. Wang, Y. J. Cho & S. J. Han. (2016). Relationship Analysis on Chinese Satisfaction to Korea Medical Tourism and Revisits Intention Korea. *Journal of Hotel and Resort, 15(2),* 221-242.

[23] C. H. Kang, K. G. Rhee & H. G. Kang.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Factors of Medical Service Quality on Customers' Intention of Reuse. *Daehan Journal of business, 26(9),* 2227-2251.

[24] B. J. Jang, Y. K. Kim & C. W. Kim. (2012).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rvice Quality of Medical Institution, Customer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for Medical Tourist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8(2),* 119-137.

[25] M. H. Kim, S. W. Choo & Y. H. Hwang. (2015). The Effect of The Brand Image on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7(2),* 115-131.

[26]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ed),* Prentice Hall.

김 유 미(Yu-Mi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졸업
· 2014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졸업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재직
· 2018년 3월 1일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성인간호
· E-Mail : hambo2628@hanmail.net

김 상 숙(Sang-Sook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석사졸업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졸업
· 2017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 스트레스 관리, 질적 연구
· E-Mail : ssk.cheongam@gmail.com